

| | |
|--|---------------------------------|
| 오전11시 | 인도 : 최세열목사 |
| ◆경배와 찬양의 예배◆ | |
|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 ※ 예배부름 | 인 도 자 |
| ※ 예배기원 | 인 도 자 |
| ※ 경배찬송 | 25장(면류관 벗어서) |
| ※ 교독문 | 12(시편 19편).....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송 | ... 94장(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
| 예배기도 | 1부 노재의집사 2부 박홍만장로 |
| 응답송 | 찬양대 |
| 이달의찬양 | “왜 날 사랑하나” |
|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 다 같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 경건과 절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의 감동과 치료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 |
| ◆말씀 듣는 예배◆ | |
| 성경봉독 | 마가복음 6:45-46 |
| 찬양 | 임마누엘찬양대 |
| 말씀선포 | “주님처럼 산에 오르라” |
| 기도 | 설교자 |
| ◆응답하는 예배◆ | |
| 찬송 | 364장(내 기도 하는 그 시간) |
| 봉헌 | (2 구역) |
| 봉헌기도 | 담임목사 |
| 친교와소식 | 말은이 |
| ※ 찬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 ※ 축도 | 담임목사 |
| ※ 축복송 | 찬양대 |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
|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 |

| 찬양예배 / 오후2시 | | 수요일예배 오후7:30분 | 시백기도회(월-금) |
|--|------|--|---|
| 3.1절기년 에스더기도회 사 회 : 김금자권사 기 도 : 신혜영권사 성경봉독 : 원혜경집사 헌금기도 : 김인순권사 독립선언문낭독 : 강진숙권사 말 씀 : 최세열목사 | |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딤편4:1-16 말 씀 / 최세열목사 그리스도의 선한일꾼 주기도문 / 다같이 |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요엘서강해 금요기도회 오후 9시/소예배실 합심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
| 예배위원 | 안내위원 |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 다 음 주 기 도 |
| | 헌금위원 | 3월 박기환 임병호 정선례 방옥남 4월 심문자 윤승호 나금옥 김영숙 | 다 음 주 성경봉독 |
| | 식당봉사 | 금주 에스더B 다음주 루디아A |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
| | 헌신찬양 | 금주 2 구역 | 다음주 청년회 |

주님처럼 산에 오르라 / 마가복음 6:45-46

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과 빼앗긴 것들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흐려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세우고, 흔탁해져가는 우리의 생활을 회복하는 시간이기에 소중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갈릴리에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세례 요한의 순교가 전해지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 후에 주님은 홀로 산에 오르시어 묵상과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산에 오르심을 통하여 처음의 마음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내면을 새롭게 하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역사에 따르면 사순절에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첫째, 성회 수요일에 이마에 재를 바르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을 기억하고, 죄인임을 기억했습니다.

둘째, 금욕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본능인 식욕을 억제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했습니다.

셋째, 구제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가르치심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순절에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로 나의 가치를 알게 하고, 높여 주셨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존재감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배반감을 느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영혼을 찢고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3.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 존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산으로 오르셔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사셨기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묵상의 산, 기도의 산에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인지,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내 영혼이 예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함으로 새로운 출발과 위대한 결과를 이루십시오.

주현절 일곱째 주(3월 2일)

제 10 과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마태복음 19장 13-15절)

(함께 읽을 말씀 : 시편 35편 10절,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묵상

1.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마 19:13). 이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교인들이 자녀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와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꾸짖고 나섰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특별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당시에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어린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참고. 마 14:21, 행 4:4). 제자들은 그런 사회적 관행에 따라 어린이가 감히 스승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보고 그들을 나무란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당시의 관행에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마 19:14-15). 여기서 안수했다는 말은 어린 아이들을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2. 흔히들 이 대목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진성, 결백함, 무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모두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착하고 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기가 어른 뻘처럼 약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기적인 인간의 보편 성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순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려세우고 아이들을 받아들여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온 아이들도 그렇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추천받은 아이들 역시 잘 차려입은 상류층의 자제일 리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은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부자(마 19:23), 부요한 자(눅 6:24), 배부른 자(눅 6:25)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마 5:3, 눅 6:20),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마 5:10), 자기를 낮추는 자(마 18:4) 등이 추천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3. 오늘 말씀에서 어린 아이는 순진무구의 상징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약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받아들였고, 나아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 18:5)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약자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시 35:10).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당시 관행을 거슬러 아이들을 영접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간다면 우리 삶이 더없이 기쁨이지 않겠는지요!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 제직회로 모입니다.
2. 오늘 찬양예배는 3.1절 기념 에스더기도회로 드립니다.
3.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은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정밤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해든솔 선교활동이 3월 8일(토)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6. 전교인 성경통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오복실 관현석 강항구 류종란 김귀례 김범진 홍강의 김성희 박지영 김태라 한상호 차소라 안복선 김애경 김선주 원혜경 강진숙 이문순 안진영 박윤희 양석임 김근중 주종임 정선래 김선영 선우명환 장영분
- 감사헌금 : 강진숙 김혜경 양석임 김동현 이종춘 심문자 김선주 원혜경 박희순 지효린 임한규 임빛나 노순영 강소윤 무명3 (생 일) 한진현 무 명 (일천번제)김동현 (심방) 박희순
- 건축헌금 : 김선주 원혜경 홍강의 김성희 이종봉 이춘호 강항구 류종란 김근중 주종임 양석임 이종춘 심문자 선우명환 장영분
- 비전씨앗 : 배영인 김예진 김승호 김태라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 구역 | 인도자 | 구역장 | 모인인원 | 헌 금 | 성경 | 모일곳 | 구역 | 인도자 | 구역장 | 모인인원 | 헌 금 | 성경 | 모일곳 | | |
|----|-----|-----|------|-----|--------|-----|-----|-----|-----|------|-----|----|---------|-----|-----|
| 1 | 박홍만 | 김금자 | 김금자 | 4 | 11,000 | 15 | 박홍만 | 7 | 강은순 | 이영선 | 김홍영 | 5 | 14,000 | 85 | 이영선 |
| 2 | 정정희 | 김한순 | 박희순 | 7 | 23,000 | | 공영순 | 8 | 김순님 | 오복실 | 허 웅 | 7 | 30,000 | 40 | 여순애 |
| 3 | 이춘호 | 함경숙 | 신공님 | 3 | 20,000 | 300 | 이유자 | 9 | 김인순 | 이영란 | 박치국 | 3 | 15,000 | 100 | 김인순 |
| 4 | 김기희 | 최경선 | 최경선 | 5 | 18,000 | 10 | 김기희 | 10 | 장영분 | 노순영 | 노순영 | 4 | 13,000 | 60 | |
| 5 | 이문순 | 원혜경 | 서영자 | 3 | 15,000 | | 남궁순 | 계 | | | | 45 | 181,000 | 810 | |
| 6 | 류종란 | 김애자 | 교 회 | 4 | 22,000 | 210 | | | | | | | | | |

예배시간안내

| 구 분 | 요 일 | 시 간 | 장 소 | 구 분 | 요 일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배 | 주 일 | 오전9시,11시 | 본 당 | 금요기도회 | 금요일 | 오후 9시 | 소예배실 |
| 찬 양 예배 | 주 일 | 오후 2시 | 본 당 | 어린이예배 | 주 일 | 오전11시 | 종합교육실 |
| 수요기도회 | 수요일 | 오후 7:30 | 소예배실 | 청소년예배 | 주 일 | 오전11시 | 소예배실 |
| 새벽기도회 | 월-금 | 오전 5시 | 소예배실 | 청 년 부 | 주 일 | 오후 2:30 | 사 무 실 |

사 순 절

사순절(四旬節, Lent)이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부활절로부터 46일 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또는 참회의 수요일, Ash Wednesday)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활절 날짜에 따라 결정이 되는 이 날은 2월 4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옵니다. 사순절 시작의 날로서 재의 수요일이 확정된 것은 주후 6세기의 그레고리 1세(Gregory Magnus, 640년) 교황 때부터입니다.

사순절은 처음 1세기에는 단 40시간으로 지켰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40시간동안 있었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3세기에 이르러서는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다가, 나중에 30일간으로 연장되었으며, 마침내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council of Nicea)에서 처음으로 '사십일'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주후 330년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의 편지와 주후 348년 예루살렘의 시릴(Cyril)의 [교리문답 강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회의 후에도 얼마 동안은 오늘날과 같은 40일간의 절기로 지켜지지 않았 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600년경부터 7주간을 지켰는데,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성지주일을 포함하여 36일간을 정했으며, 서방교회에서는 6주간으로 주일을 제외하고 26일을 지켰고, 예루살렘교회에서는 4세기 때처럼 40일을 지켰으며 8주간 중 5일만 단식하였습니다. 그 후 7세기 무렵 서방교회가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첫 주일까지의 4일을 포함하면서부터 오늘 날과 동일한 40일간의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지켜졌던 대표적인 행사는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으며,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기 시작해 14세기에 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으며, 15세기에 와서는 정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관습이 되었고,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 등도 자제되었습니다. 대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었습니다.

1517년 종교 개혁 이후 종교 개혁자들은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의식 절차들을 폐지했는데, 이때 사순절에 관계된 많은 의식들도 간소화 내지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시기로 지켰던 중세교회의 사상은 받아들여 공동기도문 중 사순절 기도문의 주제를 회개로 삼는 등 계속해서 이 절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9호 2014.3.2.

3월 교회 행사 안내

1. 평신도 참여예배 - 청년주일 / 3월 9일
2. 제직회 / 3월 2일
3.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회 / 3월 2일 찬양예배시간(주관:여신도회)
3. 해든솔선교활동 - 3월 9일 오전 9시
4. 권사회기도회 - 3월 16일 오후1시30분 / 교회 본당
5.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 * 기간 : 3월 23일(주일)-4월 12일(토)
 - * 새벽5시, 교회본당
6. 성지순례단 준비모임 : 3월 9일 찬양예배 후 / 전도실
 - * 성지순례 예정 : 2016년 3월
 - * 인원 15명이상
 - *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준비모임에 참석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성경통독

전교인성경통독에 참여합시다.
 사순절 기간을 기점으로 전교인 성경통독을 시작합니다.
 가능하다면 매 주일 정해진 분량대로 성경을 읽으시고 조금 시간이 지체 되더라도 올해 안에 1독을 목표로 성경통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신 분량만큼 게시판에 스티커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기간 : 2014.3.2. - 10.31.
 ● 기간 중 1독을 끝내신 분들은 2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